

전시회 열고 신제품 출시… 인테리어업계, 시장침체 극복 사활

LX하우시스 美 ‘KBIS 2026’ 참가
표면자재 신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현대L&C 인테리어 트렌드 ‘케어풀’
에코·커넥트·바이오 세가지 테마
시몬스 롯데백 ‘웨딩 페어’ 참여
신세계까사 ‘캠프 레스트’ 선보여

건자재·가구 업체들이 전시회 참여,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계속되는 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6’에 참가해 신규 고객사 발굴과 북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X하우시스는 고급화·대형화 추세인 현지 주방·욕실 트렌드를 반영한 이스톤 ‘비아테라(VIATERA)’부터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하이막스(HIMACS)’, 포세린 ‘테라칸토(TERACANTO)’ 등 주방 및 욕실 마감재로 선호도가 높은 표면자재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아울러 이스톤·가구용보드·바닥재 등 주요 제품으로 꾸며진 ‘주방·욕실 쇼룸’ 공간과 각 제품의 소재·질감까지 직접 만



미국 올란도에서 열리는 ‘KBIS 2026’ LX하우시스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마감재 매칭 체험존에서 이스톤 ‘비아테라’ 등을 살펴보고 있다. /LX하우시스

져보고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마감재 매칭 체험존’도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글로벌 주요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해외매출 확대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L&C는 인테리어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로 ‘케어풀(Care-full)’을 제시했다. 케어풀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공간 전반에 배려와 감수성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L&C는 거주·공유·치유 등 세가

지 목적에 맞는 공간에서의 ‘케어’를 각각 표현한 ▲에코 케어(나를 회복시키는 사적인 쉼의 공간) ▲커넥트 케어(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공간) ▲바이오 케어(몸의 균형을 찾는 웰니스 공간) 총 세 가지 테마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했다. 현대L&C는 올 한해 동안 이번 인트렌드를 통해 소개한 내용을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이를 활용한 공간 인테리어 솔루션 등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 적용하는 등 글로벌 종합

건자재 기업으로서 건자재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몬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웨딩 페어(Wedding Fair)’에 참여해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행사 기간 기존 롯데 웨딩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전국 28개 롯데백화점 내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배를 적립해 주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가입이 승인된 신규 웨딩멤버스 회원들은 롯데백화점 내 5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5월 이상 구매한 이력이 있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시몬스가 현재 전개 중인 ‘홈 스위트 홈(Home Suite Home)’ 프로모션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몬스는 매주 수요일에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까사는 베스트셀러 소파 ‘캠프’의 편안한 착석감과 디자인 정제성에 전문 안마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안마의자 ‘캠프 레스트(CAMPO REST)’를 새로 출시했다.

캠프 레스트는 까사미아 최초의 안마

기능 탑재 제품으로, 최근 소형화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하는 ‘테크 가구’ 트렌드에 대응해 기획했다. 일반적인 의자처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너 모드와 안마 모드까지 지원되는 멀티가구다.

신세계까사는 또 글로벌 디자인 거장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아우로라’ 베드룸 시리즈, 암체어, 와이드 서랍장 등도 선보였다. 앞서선 일본의 ‘미키야 고바야시’와 협업한 신규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건자재·가구업계는 전방산업인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릿고개를 넘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지난해 3조17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하락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131억원으로 2024년의 975억원에 비해 무려 86.6%나 감소했다. 한샘은 지난해 매출 1조7445억원, 영업이익 185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보다 각각 8.6%, 40.8% 빠졌다. 현대리바트도 매출 1조5462억원(-17.3%), 영업이익 157억원(-34.6%)을 각각 기록하며 전년보다 뒷걸음질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중동 이커머스 물류시장 공략

사우디GDC 그랜드 오픈 기념식
연면적 2만㎡·하루 2만상자 처리

CJ대한통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본격적으로 열고 중동 이커머스 물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우디GDC 그랜드오픈 기념식을 갖고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3년 사우디 민간항공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약 6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사우디GDC를 완공했다. 이후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거치며 이커머스 물류에 특화된 첨단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 왔다.

사우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통합물류특구에 구축한 사우디GDC는 연면적 2만㎡ 규모로 하루 최대 2만 상자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중동 지역 권역형 풀필먼트센터다. 상품 보관부터 재고



조나단송 CJ대한통운 글로벌사업부문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가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사우디GDC 그랜드오픈 기념식에서 사우디 민간항공청, 리야드 통합물류특구 실행사, 아이허브(iHerb) 등 주요 관계자들과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리, 포장, 통관 등 글로벌 이커머스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우디를 거점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에 이커머스 상품을 공급하는 초국경물류 허브(Hub)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사우디GDC는 CJ대한통운이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해외로

전이한 대표 사례로 ‘K물류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거점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GDC 모델을 도입, 아이허브와 함께 인천에 첫 거점을 세워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배송 리드타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운영모델을 구축했으며, 이 성공사례를 중동 시장에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이병권 “전통시장서 가장 생생하게 체험” (중기부 2차관)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방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연휴 이후 전통시장 물가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오후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이후 소비 여건과 물가 동향에 대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 운영 전반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현장애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기부

련했다.

이 차관은 점포들을 차례로 방문해 행사 참여 과정에서의 이용 편의, 환급 절차, 고객 유입 변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법인 행정서류 부담 낮춘다

‘기업 마이데이터’ 본격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인 기업들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 완화에 나섰다. 소진공은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협업 스타트업에 최대 1.4억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 내달 19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일부터 3월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톡,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약 30곳을 지원한다.

뽑힌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4000만원의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지원 및 개발기술 사업화자금도 연계해 지원한다.

참여 희망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에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스타트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전략과제 해결형’ 외에도 ‘민간 선별·추천형’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30개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